

투데이 칼럼

‘최고급 청자’ 출토가 말하는 장수의 역사적 시그널

최근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에 자리한 삼봉리 고분군을 발굴조사 하다가 고려시대 돌방무덤(석실분)에서 최고급의 청자가 출토되어 많은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동안 삼봉리 고분군은 가야시대 무덤군으로 알려진 유적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관심은 ‘최고급 청자’에 쏠렸지만 나는 내가 가고 자란 장수군의 역사가 범상치 않았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필자에게 있어 침령산성은 어릴 적 소풍으로 자주 다니던 곳으로 동네 놀이터와 같았다.

하지만 그동안의 발굴조사를 통해 그 역사가 밝혀져 장수군 2호 국가사적을 앞두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군의 문화유산으로 발돋움했다.

최근 침령산성을 조사한 연구자로부터 산성 내부에서 확인되는 집수정(배물)과 건물지(화재)는 인위적으로 폐쇄되었으며 아마도 그 시기를 고려시대 초기로 본다는 내용을 들었다.

장수군이 고대 역사문화에 있어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인 대적골 철 생산유적에서 용의 발톱이 4개인 청동제 범종이 출토되었다. 이 범종은 후



최 훈 식
장수군수

백제 시대의 범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확실한 시대를 알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 중인 장수를 대표할 만한 유물이다.

이 유물을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범종이 누군가에 의해 훼손된 채 출토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장수군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명이 장수와 장계로 나뉘는 시점이 고려 초기이다.

위에서 언급된 일련의 역사적 사실들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장수 지역이 역사적으로 소외되기 시작한 시점이 고려 시대 이후일 것이라는 생각에 전율을 느꼈다.

이번 ‘최고급 청자출토’는 역사용어인 미싱링크 즉, 장수역사의 잃어버린 고리를 찾는 데 결정적인 흔적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장수지역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 파견된 중앙관리의 돌

방무덤과 최고급 청자가 확인됨에 따라 철저한 계획하에 장수지역 역사문화의 지우려 했던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확인되는 가야무덤군, 철생산유적, 봉화유적, 산성유적 등은 고대사회에 있어 장수지역이 가지는 역사문화의 탁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기(氣)를 이어받아 2덕(德) 3절(節) 5의(義)의 훌륭한 인물이 배출된 곳이 장수군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가까운 시기의 고려전기 정치가이자 문인인 김부식은 그 유명한 역사책 ‘삼국사기’에 우리 지역의 찬란한 역사문화를 철저하게 배제시켰다.

또한 고려를 건국한 왕건은 자신의 유훈인 “훈요10조”를 통해 처령 산맥 이남으로서 공주강(금강) 바

깍 지방의 사람을 등용하지 못하도록 하명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수모에서도 장수군의 찬란한 역사문화는 지속적인 역사적 시그널을 통해 장수지역의 탁월한 역사성 알리고 있다.

얼마 전 유명한 한국사 강사의 말을 빌리자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후손이 똑똑하면 역사문화는 찬란함을 꽃피울 것이며 또한 역사는 분명 기억하는 자의 몫이라 하였다.

일련의 확인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은 장수군이 새롭게 도약 하는 데 있어 충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시련과 수모를 뛰어넘고 있는 장수군의 과거의 역사문화 기록들은 지역성을 뛰어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곧 개관되는 장수군 역사전시관에도 지역의 우수한 역사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반드시 꽃을 피울 거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도 장수군 행정의 수장으로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알리고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힘써보겠다는 다짐을 하며 글을 마친다.

사설

제39회 노인지도자대학 졸업식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제39회 ‘노인지도자대학’ 졸업식이 오는 11월 24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전북노인회관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제38회 졸업식은 지난해 2021년 12월 2일 전북노인회관에서 열렸다. 지난해 행사에는 전북 도지사를 대신해 복지여성보건국장이 참석했다. 도의회 의장과 김영구 연합회 자원위원장과 졸업생 66명이 참석했다.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부설 노인지도자대학은 지난 1983년 11월 14일 제1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지난해 제38회 졸업생 66명을 포함해 총 2585명(남 1584명, 여 100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올해는 68명을 선발해 5월 6일 입학식을 거행하고, 5월 13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총 63시간의 정규수업을 실시했다.

수업은 전·현직 교수와 사회 저명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33명의 강사를 초빙해 전공 분야 별로 강의를 실시했다.

졸업생 대표로 학생회장이 졸업장을 받았다. 이어서 공로상, 봉사상, 특별상, 개근상, 정근상 수여식이 있었다.

김홍광 회장은 회고사에서 “젊은 학생들의 졸업은 새로운 목표와 도전을 향한 마음다짐의 시간이지만, 어르신들의 졸업은 건강과 행복을 위한 새로운 마음다짐의 시간”이라며 졸업생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김두봉 연합회장은 “배움에 대한 열정이 인생을 값지게 한다”며 “졸업 후에도 배움의 끈을 놓지 말고 지역사회의 진정한 어른으로서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생 배움에 대한 끈을 놓지 않으며 자신을 위해 학문을 갈고 닦는 졸업생들에게 박수를 보내다, 어르신들이 모두 노인지도자대학을 통해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제2의 꿈을 향해 도전하길 기대한다.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문제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서울에 무려 네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도의회가 폭로했다. 서 사장의 임명을 강행한 전북 도지사는 사실 관계를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지만, 도의회는 임명의 부당성을 열거하며 질타했다.

도의회 본회의는 청사 전면에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강행이 인사 독재라는 현수막이 나붙는 등 긴장 속에 개최됐다. 지사는 도의회가 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김성수 의원은 지난 2019년 청문보고서 없이 현법 재관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김 관영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모습을 공개했다.

김 지사는 상황에 대한 입장 차이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9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더추택지라는 이유로 낙마한 최정호 전 차관의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신임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추가의 의혹도 제기했다.

최 후보자의 경우 보유한 집이 세 채라는 이유로 국토부 수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여론에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신임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서울에 무려 네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상가 건물과 함께 충남에 자녀와 공동 소유로 개발지 인근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 했으며 또 다시 한 발 물러섰다.

김 의원 뿐만 아니라 5분 발언에 나선 다수의 의원들이 김 지사의 인사가 독단과 독선으로 질질렸다고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하지만 김 지사 역시 낙후된 전북 발전을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기초를 유지하며 유감조차 표명하지 않고 있다. 두 기관의 갈등과 긴장은 좀처럼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중간선거 후 기자회견담회 하는 바이든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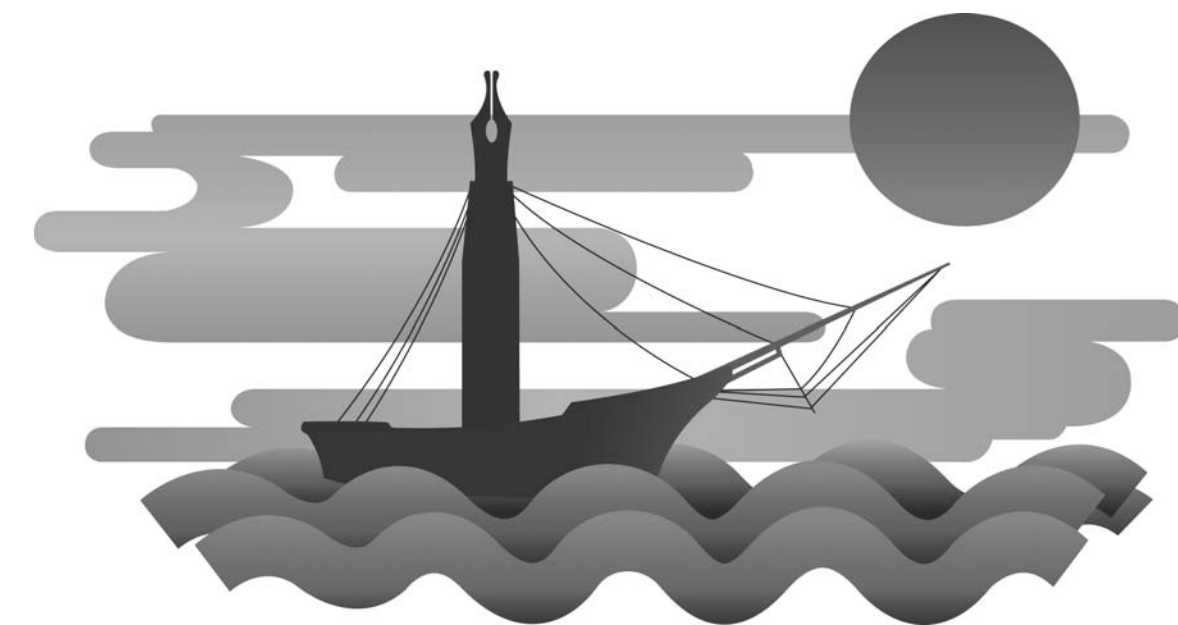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에 대해 “아직 모든 결과를 알지는 못하지만 ‘거대한 붉은 물결(공화당 압승)’은 없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재선 도전과 관련해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폴란드 UNICEF 시설에서 노는 우크라이나 아이들



폴란드 UNICEF 시설에서 노는 우크라이나 아이들

9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유엔아동기금(UNICEF) 시설에서 우크라이나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